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1. 2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장*정 / 0118208** / 2024-01-02 15:39:58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26~12/29)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11월 PCE 물가 둔화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지속되는 측면과 중공업체 수주 소식 등을 반영하며 환율은 하락 출발
- 중반, ECB, BOJ와 연준 간 통화정책 방향성 및 속도 차이 부각되며 달러 약세 이어지는 가운데 소폭 하락
- 후반, Fed 통화정책 피벗 기대 및 미 국채 입찰 수요 호조에 의한 미 국채수익률 급락과 수급상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유입 등으로 1280원대로 하락 마감

달러/원 전망

- 시장의 연준에 대한 금리인하 기대감 선반영 등에 따른 달러 과매도 국면에 대한 레벨 부담 등이 추가 달러 약세 제한하는 가운데 제한적 강세 전환 흐름 예상
- 여기에 중국의 12월 PMI 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중국인민은행의 시장유동성 공급 등의 위안화 약세 요인에 원화 동조화 가능성도 환율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99.0	1,300.6	1,286.3	1,288.0	-11.0

예상거래범위
1,285원 ~ 1,300원

장*정 / 0118208** / 2024-01-02 15:39:58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엔•유로화 동향 (12/26~12/29)

유로화 동향

- 주초, 라가르드 ECB 총재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의지 강조 발언 등 연준보다 매파적인 스탠스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강세 출발
- 중반,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큰 폭 하락한 미 국채금리로 인한 달러 약세에 상대적 강세 흐름 지속
- 후반, ECB 관계자가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음에도 최근 미 국채 수익률 급락에 대한 경계감 속 달러지수 반등한 영향으로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치 하회한 스페인 12월 CPI 등 유로존 물가압력 완화 시그널 확인되면서 약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09	1.1139	1.1007	1.1041	+0.0032

엔화 동향

- 주초, 우에다 BOJ 총재가 물가상승 목표 달성 지속 시 정책 변화 고려할 것임을 강조했으나 Fed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 시장 내 위험선호 심리 유입되며 엔화 강세 제한
- 중반, 12월 BOJ 금정위 요약본을 통해 임금과 물가 간 선순환 관계를 위한 통화완화정책 지속 의지 확인되었음에도 미 국채금리 급락한 영향으로 강세
- 후반, 일본 11월 소매판매가 21개월 연속 증가하며 예상치 상회하자 경기 회복 가능성 반영되며 강세. 이어 주 후반,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 지속되는 측면이 엔화 강세 견인하면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4	142.8	140.2	140.9	-1.5

장*정 / 0118208** / 2024-01-02 15:39:58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26~12/29)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연휴 직전 미국 11월 근원PCE 지표가 예상보다 더 둔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 기관들의 장기 구간 매수 강화 등에 따라 하락 출발
- 중반 들어, 국내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2%로 2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의 미 국채 금리 반락 등이 반영되며 하락 이어진 가운데 태영건설 관련 PF 부실화 우려가 부각되며 크레딧물 전반은 상승 압력 확대
- 후반 들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 표명, 이러한 워크아웃 신청 소식 등이 국고채 시장 강세에 일부 영향을 미친 가운데 미 국채 금리 급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크게 하락 추세 유지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2024년 AI 관련 수요 증가 업황 회복 기대 등에 따른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 출발. 하지만 연말 거래대금 축소 및 대주주 양도체 완화에도 개인 매물 출회 확대 등으로 추가 상승세는 제한된 국면
- 중반 들어, 배당락 관련 충격이 제한된 분위기 속에 반도체 업황 기대 등으로 상승 추세 유지. 다만, 현 지수대에 대한 부담 등이 상승 폭 제한
- 후반 들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소식에도, 공식 발표 이후 불확실성 해소 등의 영향 및 '24년 미국 금리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 속 외국인 수급 강화 등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며 마감

장*정 / 0118208** / 2024-01-02 15:39:58